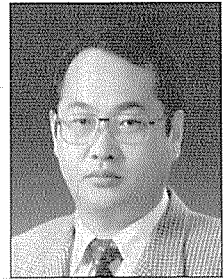


사서의 불만과 권익을 오늘도 내일도 주창만 할 것인가?



곽 동 철*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주변에서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수 많은 전문직단체들의 목소리를 너무도 많이 듣고 있다. 거의 대부분 전문직단체들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주제를 설정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단체들은 한번 주창한 주제의 목소리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계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도서관계는 사서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직단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도서관계는 20, 30년 전의 주장을 재탕, 삼탕 하면서 계속 되풀이만 할 것인가. 왜 이처럼 이익단체로서 한국도서관협회라는 전문직단체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약하기만 한 것인가. 금년 총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니, 그만큼이라도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사서도, 도서관계도, 한국도서관협회도 모두 변해야 살 수 있다. 분명 각 관종별 도서관에는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사서들의 참여는 도서관의 현안문제 관련 세미나에서 조차 거의 찾기 어렵고, 이익단체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사서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서직은 전문직이 아니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전문직단체가 아니란 말인가. 우선은 사서들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나아가 한국도서관협회의 양태가 변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서들은 전문직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개인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도서관이라는 단체회원의 그늘 속에 안주하며 반사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서의 수가 50,000명을 상회하지만, 그 가운데 정작 개인 또는 평생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사서는 2,000여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서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서들은 도서관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서관의 지배를 받는 한낱 구성원으로서 만족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한국도서관협회의 움직임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 포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들의 협회인지, 사서들의 협회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wackdc@chongju.ac.kr

다. 만약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및 사서의 협회라면 이것 역시 분명히 밝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직의 열렬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미 시민의 참여가 없거나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듯이, 한국도서관협회 역시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도 다른 나라의 도서관협회에서와 같이 개인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이나 평생회원, 단체회원들이 모두 함께 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을 총회석상에서 소견발표의 내용을 듣고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정관에 의거하여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고자 한다면, 임원을 선출할 권한을 지닌 평의원회의 구성이라도 직접투표를 통해 평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전문직 사서들은 이제 지쳤다. 전국의 도서관들도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에서 20,30년 전부터 현안 문제에 대해 거의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여 왔던 인사들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분위기 속에 똑같은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주변 환경과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부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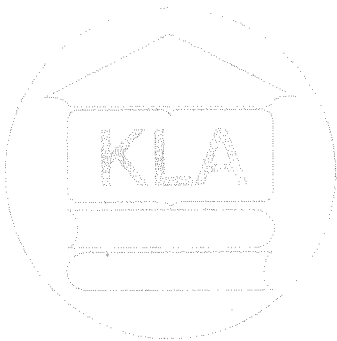
인사명령을 보자. 각 부처별 실장이나 국장, 심지어 장관이나 차관의 나이도 대폭 낮아져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정도이다. 우리 한국도서관협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도 전문직단체들 가운데 임원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한다. 물론 전문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육체적인 나이가 문제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전문직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발전을 바란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줄기차게 도서관 문제를 주창하여 왔던 인사들이 스스로 또 다른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주인공을 찾아 전면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모든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 인사를 설득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한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갑자기 일국의 지도자가 유명을 달리해도 그 나라는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도하여 왔다. 전문직단체는 오직 전문직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곳이다. 그동안 도서관계의 전면전에서 오랫동안 칼을 잡고 진두지휘하여 왔던 인사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대열에서 계속 노익장을 과시하며 불호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돌아서서 새로운 투쟁대열에 힘을 배가시켜 주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서들은 전문직으로서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쟁대오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쇄신에는 지금이 적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서의 불만과 권익을 오늘도 내일도 주창만 할 것인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사서들은 전문직으로서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쟁대오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쇄신에는 지금이 적기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2006년에 개최되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를 담보로 사서직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도서관협회는 맹목적으로 IFLA만을 위한 대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전국의 모든 사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의 임원과 직원들은 이미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를 인상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더 많은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서관협회는 IFLA 대회의 폐막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 이제는 사서들은 물론이고 한국도서관협회도 다각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함께 살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에 수동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나가면, 사서직과 한국도서관협회는 역사의 장에서 미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모든 사서들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손님이나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투쟁과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도 전문직 사서들 및 도서관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체제 개선과 함께 사회적 투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도서관협회는 새로운 사명과 이상을 정립하고 사서의 불만을 해소하며, 사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쟁대오를 갖추어 격렬한 전투에 임할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을 딛고 희망이 넘쳐흐르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를 위한 전문직 사서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참을 기대할 수 있다. ☞



“전국의 모든 사서들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손님이나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투쟁과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도 전문직 사서들 및 도서관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체제 개선과 함께 사회적 투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